

2024
MARCH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

263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Open Doors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 이사야 43장 4절 -

동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 오픈도어 사역 둘러보기

귀중한 사람들

- 무가치한 여성은 없습니다 (이란, 이라크)

- 어머니를 위한 역량 강화 (시리아)

당지 않는 교회로 다가가기

- 원주민 선교사 루카스의 이야기 (콜롬비아)

박해와 선교현장 - 북한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2)

Heart To Heart

- 2024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4년 3월호 | 통권 263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유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새별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목차

03 동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 오픈도어 사역 둘러보기

05 귀중한 사람들

- 무가치한 여성은 없습니다 (이란, 이라크)

- 어머니를 위한 역량 강화 (시리아)

10 닿지 않는 교회로 다가가기

- 원주민 선교사 루카스의 이야기 (콜롬비아)

12 박해와 선교현장 - 북한

19 북한선교현장 - 이고삼: 시작은 어머니로부터(2)

21 Heart To Heart

- 2024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동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Open Doors 오픈도어 사역 둘러보기

오픈도어는 특별히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성도들에게 다가가 결코 혼자
가 아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기 가장 위험한 곳에서 살아
남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에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비전은 가
장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 교회가 번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 도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픈도어는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
게 식량, 의약품, 트라우마 돌봄, 법적인 도움, 은신처 및 학교, 그리고 기독
교 문헌, 훈련, 자원을 통한 영적 지원과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전세계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



중국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인 리*는 최근 중국 중부에서 박
해 대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훈련에는 중국 기독
교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일하는 교회 사역자 최소 90
명이 참석했습니다. 훈련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고난

의 성경적 이해와 박해에 대응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한 준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세미나가 끝날 무렵에
리는 지방 당국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
님 안에서 용기와 믿음으로 가득한 가운데서 교회 사
역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저희는 조
용히 속삭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
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
호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숨기소
서.” 리가 기도했습니다. 리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음
을 느꼈습니다. 그 대신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
다. 이것은 세미나 이후에 정확히 리가 바랐던 것이기
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훈련 이후에 저희가 보길 원하

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위기는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건물 입구에만 머물렀고 보통처럼 회의실을 살피거나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니카라과

니카라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레온에서 30명의 목사들이 아름다운 교회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적갈색의 종탑들은 도시를 둘러싸는 담녹색 산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같은 그림 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로서 마

주하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중대한 이유이죠. 이들은 정부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는 가운데 제자훈련과 목회훈련을 받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호라시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하여 진실되게 설교할 자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집에서조차 감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제한은 이곳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염려를 낳습니다. 자원과 성경적 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목사들은 교회를 위한 지원을 받거나 합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정부 제안에 유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정부의 제한 가운데서도 훈련은 더 많은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이끌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영적 성장은 더 높은 예배 및 교회 활동 참여율로 이어졌습니다. 니카라과의 지도자들을 위해 지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안 상의 이유로 실제 이름과 사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베다니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베다니의 딸은 과격분자들에 의해 납치되어 풀려나고 일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와 선물을 통해 베다니와 같은 신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오픈도어 동역자 덕분에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베다니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오픈도어가 전세계에 있는 신자들에게 긴급한 필요에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지까지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책, 훈련, 식량 키트, 은신처, 그리고 이외에도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 가능하도록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더욱 따뜻한 봄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가치한 여성은 없습니다

이란 출신인 심인은 박해로 인해 집, 직업,
그리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사진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여성은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지만, 기독교인 여성들은 무가치한 것처럼 느낍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라*의 아버지는 분노의 눈으로 식탁을 뒤집고 그녀에게 고했습니다. “너가 지금껏 내내 기독교에 대해 물을 때, 나는 그저 지나갈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보아하니 내가 너를 올바르게 키우지 않은 것 같구나!”

그는 사라의 휴대폰을 잡아채고 그녀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사라의 고박 10일 동안 그곳에 갇혀 남아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녀의 이름을 족보에서 지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정말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단지 그녀가 이슬람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라크에 거주하던 사라는 기독교인 친구로부터 받은 성경을 수개월 동안 읽었습니다. 그녀가 성경에서 발견한 사랑의 하나님은 그녀가 자라면서 두려워한 이슬람의 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사랑했던 가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무가치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공격 아래

중동 전체에 걸쳐 여성들은 취약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권리가 더 적고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성이 그리스도의 제자일 경우에는 취약성으로 인해 착취를 당하고 극심한 박해의 표적이 됩니다.

“주님은 저를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가셨다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남성들은 신앙을 이유로 폭력적인, 신체적인, 그리고 공개적인 공격에 직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들이 겪는 박해는 은밀하고 잔인합니다. 오픈도어의 최신 성별 종교 박해 보고에 따르면, 기독교인 여성의 가치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성폭력으로 수치를 당하고, 강제 결혼으로 가치가 낮춰지고, 그리고 일과 자립을 잃음으로 정체성을 빼앗겼습니다. 박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은 자주 감춰져 있습니다.

심인의 이야기

이란에서 온 심인*은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성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죠. 저희는 무시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심인은 신앙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족은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슬람과 이란 정권은 여성



의 정체성을 파괴했고 거의 모든 여성들이 낙담했습니다.” 어느 날, 심인의 집은 경찰의 습격을 받았고 자존감은 빼앗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18일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유죄로 판결 받고 몇 시간 후에 병원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살아 남아 계속 예수님을 섬길 유일한 방법은 이란을 떠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몹시 무서웠지만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 마땅한 여성은 없습니다. 사라와 심인과 같은 여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여성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죠. 저희는 무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는 박해 받은 여성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리더십 및 제자 훈련, 트라우마 돌봄, 그리고 목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동 전체에 걸친 희망센터에서 여성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사라에게 전세계 교회들의 돌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도망해 이라크 북부에 있는 희망센터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신앙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을 갖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가셨다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집, 직업, 그리고 자유를 잃은 심인은 여러분의 지지를 통해 다른 여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다른 여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여성은 박해로 인해 무가치한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강력한 교회 공동체는 박해 받은 여성들을 일으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가치를 깨닫을 수 있습니다.

**보안 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박해 받은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가치를 깨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기도합니다

- 심인의 믿음이 자라가고 다른 여성들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사라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특별한 자녀로서 자신의 가치를 깊이 깨닫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중동 전체에 걸쳐 신앙을 이유로 수치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무가치한 것처럼 느끼는 여성들에게 용기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선물합니다

40,000 네 명의 여성에게 신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적 문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0,000 한 명의 기독교인 여성에게 가족의 생존을 도울 수 있는 한 달치 식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0,000 한 명의 박해 받은 여성이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재정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여성사역

계좌입금:

여성사역 캠페인 -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어머니를 위한 역량 강화

시리아 알레포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하고 아니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의 딸은 인생을 뒤바꿀 부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지는 아니를 일으켰고 그녀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아니는 그녀의 세상을 뒤흔든 무서운 경험을 회상하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저는 아기 마리아를 무릎에 앉혔는데, 순식간에 제가 날고 있는 모습과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넘어졌고 마리아가 머리에 엄청난 부상을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시리아 내전 후 몇 년이 지난 2014년에 갓 결혼한 아니와 사르키스는 고향 알레포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가정으로, ISIS와 같은 단체로부터 극심한 위협에 처했습니다. 폭탄 폭발로 인해 7개월 된 마리아는 사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화와 안전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마리아의 머리에서 파편을 제거했지만, 한 조각이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아이의 뇌에서 제거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라고 아니는 말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마리아는 회복했지만 의료 돌봄이 계속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니는 본적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이 자매를 위해 여러분은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는 여러분께서 오픈도어 파트너들을 통해 실제적이고 영적인 도움을 주신 희망센터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마리아의 뼈가 더 이상 수술 없이 낫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아니는 성경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평화와 안전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이렇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아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지를 통해 임신한 아니 가정의 새 보금자리를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 엘리자가 태어나고 나서 여러분의 선물은 아니가 재봉틀을 가지고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들의 삶을 바꿔 놓은 폭격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아니와 사르키스, 그리고 딸 마리아와 엘리자는 믿음과 용기로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인해 시리아를 떠나고 있지만, 이 가정은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 삶의 도전들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나라를 사랑하고, 제 사업 덕분에 이 곳에 남아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엘리자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통해 저를 도와주셨고, 저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 정기적인 의료 돌봄을 필요로 하는 10살 마리아가 완치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아니가 알레포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강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시리아 가운데 평화와 안전을 위해, 그리고 종교적 박해가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지 않는 교회로 다가가기

원주민 선교사 루카스의 이야기

콜롬비아 대서양 해안 출신의 아르후아코 원주민 루카스*는 10년 넘게 선교사로서 시에라네바다 데 산타마르타 안을 다니며 지역사회에서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2003년, 사라*는 신앙을 이유로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투옥되고 추방을 위협을 받았습니다. 콜롬비아 대서양 연안의 시에라네바다 데 산타마르타 원주민 보호구역에 있는 유일한 교회인 팔레스티나 교회는 불에 탔고 성도 대부분이 전통 지도자들에 의해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라와 지역사회 내 다른 몇몇 기독교 가정만 남았고 그들은 2년 넘게 신앙을 비밀리에 지켜가야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들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었고, 부인하거나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지역사회 사람들은 이들의 평결을 증언하기 위해 교회가 있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에 사라는 떠나겠다고 했지만, 원주민들은 떠나지 말고 원주민 보호구역 반대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살도록 하였습니다. 사라에게는 부

인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으로만 부인하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풀려나고 나서 곧바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격려를 받으며 제 아이들은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 인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사라는 몇달 동안 비밀리에 그녀의 신앙을 지켜갔는데, 전통 원주민인 그녀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체벌하고 신앙을 다시 버리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신실하게 행동할 때 그분도 저희에게 신실할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많이 처벌하였지만, 그것은 저의 신체에 대한 학대이지 영혼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사라의 자녀들 중 한 명인 루카스*의 가슴에 흔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팔레스티나 새로운 교회의 공동 목사입니다. 이 작은 모임의 원주민 형제자매들은 10년의 박해 이후에 본인 지역으로 돌아갈 것을 전통 지도자들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고 나서 저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밤에 만나 사람들이 저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설득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정말 많이 성장해 확장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두려웠지만, 두려움은 저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자신을 주님께 더욱 헌신하도록 이끌었고 주님이 저희를 도우셨습니다.”

시에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전통 지역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라 팔레스티나 지역사회 밖에서는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원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선교사가 이 지역에 도착한 이래, 사람들은 복음이 그들의 문화에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발각되면 체포되고, 체벌을 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지역사회에서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루

카스는 만날 수 없거나 일년에 단 몇 번만 만날 수 있는 다른 지역사회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3년 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몰래 다니며 보통 밤에, 또는 산에서 만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장시간 걷고, 잠을 잘 못 자고, 제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출발하기 전에 주제를 준비해서 갑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 얘기를 해주죠. 제가 성경을 지니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주민 언어로 얘기합니다. 저희는 복음, 그리고 박해를 대면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메세지를 깨닫고 나면 결단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셨는데, 저희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는 메시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복잡성은 교회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방법은 저장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인인 척하며 다른 지역사회에 있는 신자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 오픈도어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계획을 나누자 오픈도어는 지역사회에 가져갈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라 시에라 내 Serankwa, Galicia, Seynura, 그리고 이외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정에 다가갔습니다. 이 가정들 가운데 심겨진 씨앗을 통해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비밀리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 염려는 바로 사회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학업 또는 직업을 위해 지역사회를 떠나야 할 때, 복음을 저버리기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초등학교까지 공부하는 것이 허용되고, 흔히 이마저도 끝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보호구역 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거나 교실에서 강제로 전통을 익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교회는 선교회의 도움을 통해 보호구역과 가장 가까운 도시 아라까따까에 집을 구매하여 학업을 마치러 온 지역사회 젊은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지낼 곳을 공급합니다. 이 집은 다른 지역사회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가는 형제자매들을 둔 교회를 위한 만남의 공간으로 사용되기

도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루카스와 지역사회의 다른 선교사들을 위한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루카스가 나눕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지역사회가 진정한 창조주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 루카스는 언젠가 시에라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아르후아코 공동체가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목적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용기와 지혜, 그리고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목숨을 걸고 시에라네바다 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루카스의 인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박해자들로부터 숨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물합니다



자동이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라틴아메리카

계좌입금:

라틴아메리카 -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기독교 박해지국

1 위

북한 (NORTH KOREA)



폭력과 압박의 정도



여섯 개 영역은 각각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 × 16.7 = 100).

중요한 발견

북한에는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 정권은 모든 시민들을 감시한다. 기독교인들은 적발되면 그들과 가족들은 정치범으로서 노동 수용소로 추방되거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므로 다른 기독교인들과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극비리에 해야 한다. "지도자들에 대한 숭배는 수년 간 점점 더 중요해졌고, 끊임없는 세뇌와 함께 "미신"과 (명명하지 않고) 종교에 대한 경고도 더 중요해졌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Kimilsungism-Kimjongilism and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thought and conscience in North Korea", 2022년 7월 29일).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제28조에 언급된 금서들에 성경을 포함시켜 기독교가 여전히 국가에 의해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평양의 교회들은 겨우 선전 목적에 쓸모가 있다.

북한 (NORTH KOREA)

국가 정보

지도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
인구 : 26,090,000 명
기독교인 수 : 400,000 명 (오픈도어 추정)
주요종교 : 불가지론
정부형태 : 일당 독재 체제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비율
기독교인	400,000	1.5
불가지론자	15,003,272	57.5
무신론자	3,915,143	15.0
기타	3,284,826	12.6

정보¹

1907년에 평양대부흥이 시작되었고, 북한의 수도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졌다. 교회 수백 곳이 갑자기 생겨났고 선교사들은 국내 도처에서 교육기관들을 설립했다. 일본의 통치 하에서 교회는 갈수록 더 박해를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의 패배 이후, 김일성이 집권했고 공산주의 (무신론적) 정권을 시행했다. 한국전쟁(1950-53)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망했고, 여파로 수천 수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망하고, 구금되거나 외딴 마을로 사라졌다. 나머지 교회는 지하에 숨었다.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에 300,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단지 10년 후에는 그들의 가시적인 존재는 더 이상 없었다. 김일성주의는 (지배하는 가문에 대한 숭배) 규정된 국가종교이다. 모든 시민들은 매주 자아비판 시간에 참

석하고 100면 이상의 사상 자료를 암기해야 한다. 북한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 성분이라고 불리는 사회 계층 제도를 개발했고 이 아래서 모든 시민은 세 개의 계층으로 나뉜다; 핵심 계층 (사회의 28%), 동요계층 (45%), 그리고 적대계층 (27%).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된다. 기독교는 싸워야 하는 위험한 외래종교로 간주된다. 오픈도어는 수천 수만의 기독교인들이 노동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한 2020 UN 보고는 이러한 수용소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강제 나체, 강간, 그리고 강제 낙태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강조했다. 기독교인 남성들도 노동 수용소에서 신체적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다.

종교 통계를 보여주는 확실한 자료는 구할 수 없다. 오픈도어는 기독교인 수가 400,000일 것으로 추정하지만, 최고 500,000일 수 있다. WCD 정보 (2023년 3월에 접속) 한 한국인 대주교가 최근에 출판된 한 도서에서 가톨릭 교회는 숨어 있고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고 있음을 주장했다 (UCA News, 2022년 5월 17일). 아무도 모르게 내면적으로 따르기 쉬운 철학을 가진 불교 및 유교 추종자들이 있다.

2011년부터 권력의 자리에 있는 김정은은 위원회, 정부, 그리고 군대를 통제한다. 그는 북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길 원해 로켓 및 핵 기술을 증진하는데 일했

¹기타는 중국 민속 신앙 신자, 신흥종교 신자, 시크 교도, 강신술 신자, 도교 신자, 유교 신자, 자이나교도, 신도 신자, 조로아스터교도를 포함한다.

정보 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오픈도어 추정에 따라 조정되었다)

고, 이에 더해 외교공세에 착수해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US) 대통령들과 만났다. 오랫동안 예상되어왔던 움직임에서 북한은 2022년 9월에 스스로를 “핵보유국” 라고 선포했다 (BBC News, 2022년 9월 9일).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 하에 경제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정권은 그들의 궁핍한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거부한다. 북한 정보부와 중국 경찰 간의 보다 큰 합동은 대개 여성들로, 발각되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초래했다. 중국의 안면인식기술도 이를 더 쉽게 만들었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 정치범 수용소들 및 전체 통제 구역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미 국무부, 2019년 3월), 최신 세부 사항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국의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해당 영역은 월드와치리스트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해당 영역의 기독교인들은 한국전쟁(1950-1953) 이전에 국가에 살던 이들과 그들의 후손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쟁에서 사망하고, 남쪽으로 도망하거나 외딴 마을로 사라진 동안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가 신앙을 숨기고 지하교회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연좌제 원칙으로 인해 알려진 기독교인들의 후손들은 대처할 수 없는 사회적 장애물들에 직면하고 의심쩍게 관찰된다.

기독교 개종자들

해당 개종자들은 공산주의 또는 “김일성주의” 배경 출신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 기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서 중국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던 때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들은 북한으로 돌아와서 새로 발견된 신앙을 간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나눴다 (Associated Press, 2018년 4월 5일).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

해당 영역은 월드와치리스트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해 및 차별의 주요 근원

공산주의 및 공산주의 이후의 탄압

비록 북한은 지도자들에 대한 개인숭배가 지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산주의 관습과 사회 통제에 따라 기능 되고 있다. 종교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인들은 성분 (국가의 사회 계층 제도)에 따라 적대 계급에 속한다.

독재정권

김정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업적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자신의 것을 추가적으로 강조하도록 국가 선서를 개정했다. 2020년 여러 차례의 행사에서 김정은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 주요 행사표에서 주요 최고 기념 행사인 태양절에 그들의 '성지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는 그가 그의 권력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보여준다.

앞에 말한 근원들은 너무 밀접하게 함께 작동되어 거의 하나로 혼합된다. 두 가지 모두 주요 가해자는 정부 관리들과 조선노동당, 그 다음이 시민들과 대가족이다. 당국의 최고 목표는 국가 및 지도자의 생존이다.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웃들이 당국에 보고하기 위한 모든 의심스러운 행동을 살핀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무수한 북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노동 수용소에 있는데, 여성 수감자들은 성폭력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다. 탈북자들 중 많은 이들은 여성이고, 중국으로 망명하는 북한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북한인 본국 송환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그 이래로 재개되었다. 본국으로 송환된 여성 탈북자들과 수감자들은 심문 과정 동안의 성폭력, 그리고 계속되는 강제 낙태의 관행에서도 매우 취약하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정부에 의한 투옥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남성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는 주민에 대한 국가 감시가 특히 가정의 남성 가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성인 남성은 정부가 할당한 일터에 속한다. 그들은 일터에서 늘 출근 확인을 해야 하고 어떠한 사적인 이유로도 일을 쉴 수 없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가진 사람은 군대(남성은 병역이 10년이다), 대학교, 그리고 일터에서 최하위 직위에 처하고 당원 자격도 거부된다. 남성들도 노동 수용소에서 학대와 신체적인 폭력에 시달린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일 / 직업 / 사업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투옥
- 군대 / 민병 징집 / 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신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의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1	96
2023	1	98
2022	2	96
2021	1	94
2020	1	94

북한은 2002년 월드와치리스트부터 2021년 월드와치리스트까지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 장악이 전례 없는 박해의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 때 중단되고 나서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 때 정상으로 돌아갔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압박은 최고 수위에 남아 있고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기에 북한은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함께 기독교인들은 계속 체포되고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다. 폭력점수는 아주 적게 감소했지만, 이는 상황이 나아진다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보고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도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 널리 보고된 한 기독교인 가정에 대한 체포는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대가가 여전히 높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보고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사항들은 이곳에서 발표될 수 없다.

.....

개인영역

경찰과 정보원들은 예고없이 집을 수색한다. 그들이 기독교 자료들을 발견하면, 이는 국가에 반하는 범죄로 간주되고 온 가족이 추방당하거나 수감되거나 처형을 당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폰 또는 라디오를 사용하여 승인되지 않은 매체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다. 기독교인들은 감히 이불 안에 숨어서 밤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할 뿐이다. 한 국가 전문가에 의하면, 모든 예배 행위는 스스로 하는 것일지라도 “심각한 불충 행위”로 여겨진다. 시민들은 가족 구성원들을 포함해 정권의 적이 될 수 있는 누구나 보고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가 그들이 배운 것과 반대로 처신하는 것을 보면 고발하도록 부추긴다. 이 같은 위협으로 인해 보통 기독교인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십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의 신앙에 대해 얘기한다.

가정영역

세례는 드러내 놓고 할 수 없는데, 이는 투옥 또는 처형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개인영역에서 본 것처럼, 자녀와 신앙을 나누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기독교인들은 동화로 가장한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것이다. 일부 북한 이탈 주민들에 의하면, 만약 한 기독교인이 발각되고 비기독교인 배우자의 부모가 고위직 이라면 그들은 두 사람을 강제로 이혼하게 하고자 하고 관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없애고자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좌제 원칙으로 인해 일가족이 심문을 당하고 수감된다.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가장 중요한 과목은 김일성주의다. 심지어는 핵물리학과 같은 과목의 박사 학위 과정에서 수업 활동의 30%가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기독교는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서 온 체제 전복적인 이데올로기로 묘사된다; 기독교인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자와 첩자로 간주된다. 한 국가 전문가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들은 조기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



공동체영역

북한은 인민반이라는 공산주의 이웃 감시 시스템을 적용한다. 주택 단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국에 보고된다. 경찰 또는 첩보 기관에 의한 무작위의 심문은 모든 시민들에게 흔하다. 그 목적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내 처형하거나 수용소 또는 외딴 산지로 추방하는 것이다. 한 국가 전문가에 따르면, 심문(그리고 관련된 고문)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주요 측면 가운데 하나이다. 기독교인 친척들을 둔 사람들은 면밀히 감시되고 좋은 학교, 대학교, 군대, 그리고 노동당 참여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모든 북한인들은 출퇴근길 또는 등하교길에 동상들에 목례를 해야 하고 자아비판 시간이나 국가행사 같은 관례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영역

새로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헌법 68조와 함께 시민들은 “종교적 믿음의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구실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다. 국가 기능을 위한 헌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당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다. 이것들은 북한 정부 및 사회의 통치 원칙이다. 창시자 김일성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 원칙들은 최고지도자(수령)와 조선노동당(KWP)에 대한 정치적 통일체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장하기 위해 형성되

었다. 전국 언론은 반기독교의 내용을 방송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사악한 배반자로 묘사되고 선교 활동은 “테러 행위”로 불린다. 한 국가 전문가에 의하면: “모든 북한 매체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미국이라는 적의 강도, 사기꾼, 첩자로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악마로 묘사한다. 대중 매체 만이 아니라 학교 교과서와 다른 출판 도서들, 영화들, 공식 문서들, 그리고 사상 학습 자료들도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묘사한다.” 기독교인들은 임의적으로 체포되고 재판 없이 처벌을 받는다. 심지어 법정 소송에 직면한 외국인 기독교인들도 평등한 대우를 박탈당하고 장기적인 임의 구금을 당한다.

교회영역

북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증거”로서 관광객들이 참석하는 평양의 공인된 교회에서 열린 예배들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모든 교회 활동들은 불법이다. 지하 교회

단체들이 발각되어 기독교인들이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당한 사례들이 있었다.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사항들은 발표될 수 없다. 정권은 지도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처벌하고 나머지 네트워크에 대해 심문하는데 특히 관심이 있다. (비록 우선 보고기간 동안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았지만) 북한을 드나드는 관광객들은 개인용 성경책 한 권만 소지하고 그것을 그곳에 두고 떠나지 못하도록 수화물을 검사 받는다. 기독교 자료를 들여오거나 제작하는 것은 금지된다. 통일연구원(KINU)의 북한인권백서 2021에 따르면, 단지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처형이 더 빈번해지고 있다. 성경을 배부하는 것은 소지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인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날 수 없기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에서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 위반

북한은 다음 국제 조약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4.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북한은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유로 임의로 처형을 당한다 (ICCPR 제6조)
- 기독교인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본국 송환되어 고문을 당하고 강제 노동 생활을 강요당한다 (ICCPR 제7, 8조)
- 북한인 삶의 모든 측면이 국가에 의해 끊임없이 감시되고 통제된다 (ICCPR 제17조)
- 기독교인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신앙을 갖거나 예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ICCPR 제17조)
- 기독교인들은 예배하기 위해 모이거나 만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ICCPR 제21조)
- 기독교인들은 “적대적”로 분류되었고 그들의 신앙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다 (ICCPR 제26조)

다른 소수 종교들의 상황

비록 북한 지도부에 대한 송배는 원칙적으로 종교에 대한 여지가 없지만, 불교 및 유교 추종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종교들은 아시아 문화적 사고방식에 해당하고 비밀스레 추종될 수 있다.

‘미신적인 활동’ (점술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은 금지된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NGOs)은 예를 들어 결혼 계획 또는 사업 거래 진행 이전에 이러한 활동이 증가했음을 보고했다.

파룬궁 추종자들에 반대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오픈도어의 북한 사역

북한에서 주력하는 사역 영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 중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의 박해 받는 성도들에게 긴급구호품 공급 (식량, 의약품, 의복, 등).
- 라디오 방송을 통한 훈련
- 중국에 있는 북한 성도들에게 은신처, 훈련, 그리고 훈련 자료 제공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2)



막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면서 우셨던 어머니는 한참 후에 정신을 추스르시고 우리를 앞에 앉히셨다. 그러고는 “그 동안 너희들이 너무 고생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 엄마가 꼭 고생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비장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의 웅한 얼굴이 딱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을 지키지 못했는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우리를 버려두었는지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오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다면 좋았았겠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어머니는 당원에 충성분자였던 아버지와 뼈대 있는 집안의 시댁이 겨우 어린 아기 하나 돌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넘어 큰 분노를 느끼셨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막내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치닫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 가족은 깨어지고 말았다.

당시에는 몇 년 사이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방황했지만, 여러 세월의 질곡을 겪고 그 당시 부모님의 나이가 된 지금은 그 아픔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탓이 아님을 안다. 바로 우리 부모님께서 충성하셨던 북한과 그 체제가 우리 가족을 덮친 절망의 주요 원인이었다. 성경책 한 권 때문에, 그것도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아무런 정당한 절차 없이 어머니를 체포하고 고문했던 그 악랄한 인권 유린과 박해, 그리고 가장들을 직장애 매어 놓고 통제하는 시스템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

지 못하시고 제대로 배급도 나오지 않는 직장애 꼬박 꼬박 출근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 막내의 죽음과 가족의 깨어짐은 그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그렇게 충성분자로 살아온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철저하게 배신하였다. 사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다. 고난의 행군은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어왔던 지도자와 당에게 배신을 당한 사건일지도 모른다.

외삼촌이 왜 우리 어머니에게 그 성경책을 건네주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어쩌면 외삼촌은 복음을 받아드리고 신자가 되었고, 어머니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 위험한 책을 굳이 어머니에게 건네진 않았을 것 같다. 돌이켜보면 이후에도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왔고 그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도 있었지만 그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건네진 성경책도 단순한 비극과 고통의 원인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의 표지였을지도 모른다.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셨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된지도 어느덧 수 년이 지난 그 해, 부모님 두 분은 결국 이혼을 하셨다. 여동생과 남동생은 어머니가 책임지셨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 아버지는 늘 팔베개를 하고 책을 읽어주시기도 하며 나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아버지를 향한 애잔한 마음이 있었다. 나는 동생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동생들을 보러 갔다. 하지만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살아오셨던 아버지는 제대로 된 배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고지식하게 배정된 직장에서 일하셔야 했고, 그러다 보니 나 하나도 부양하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셨다. 아버지는 결국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 하시며 나를 어머니에게로 보내셨다.

출소하고 돌아오시면서 우리에게 “고생한 만큼 갚아주겠다.” 약속하셨던 어머니는 그 약속을 기어이 지켜내셨다. 사업수완이 좋으셨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우리를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셨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동해에서 나오는 특산물(명태, 털게, 낙지 등)을 중국으로 판매하고 중국의 밀가루와 옥수수를 사 오는 중개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셨다. 나라 전체가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굶어 죽는 시기였지만 우리 집 창고는 늘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평소에 밥을 배부르게 먹을 뿐 아니라 당시 살던 귀국자 아파트에서 이웃과 함께 농마국수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어머니께서 잘 만드시던 깨 송편이나 생태나 오징어로 요리한 순대 등 여러 별미도 종종 해먹었다. 남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평안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집 밖의 상황은 심각했다. 우리 학교는 지역 명문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친구가 밥을 먹지 못해서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도시락을 싸 오는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나마 싸 온 아이들도 누가 훔쳐 먹을까 몰래몰래 음식을 먹었다. 당시 어머니는 내 도시락을 쌀 때 항상 선생님의 도시락도 싸주셨는데, 선생님은 집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그 도시락을 드시지 않고 늘 집에 가져가시곤 했다. 나 중에는 결국 도시락을 싸 오는 학생이 완전히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나도 분위기상 도시락을 챙겨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점심시간에는 집에 달려가서 밥을 먹곤 했다.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밥 먹었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기에 나는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밥 대신 강냉이 국수를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한번은 담임 선생님이 반장인 나에게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친구를 데려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부반장과 둘이서 그 친구네 집으로 갔다. 학급 동무네 집은 언뜻 봐도 새까맣게 불에 타 있고 그 친구는 없었다. 그 집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중 드디어 친구를 봤는데 그 사이에 친구의 몸골은 말이 아니게 변해 있었다. 그 친구는 나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치는가 싶더니 애써 태연한 척 다가왔다. 나는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같이 학교에 가자고 했다. 그 친구는 나더러 뭘 알겠냐는 표정으로 “학교는 배부른 애들이나 가는 곳이지”라며 자신은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니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친구도 없이 돌아가면 선생님께 혼날 것 같아 그 자리를 쉽게 뜰 수도 없었다. 그 뒤로 그 친구를 몇 번을 더 찾아갔는데 그 친구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되었다. 친구의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으로 약 한번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굶주림에 허약으로 돌아가셨고 친구는 어느새 부턴가 꽃제비가 되어 기차역에서 다른 꽃제비들과 함께 승객들에게 물을 떠다 팔고 있었다.

나는 부모님이 안계시면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며 전에 어머니가 붙잡히셨던 그 때를 떠올렸다. 성경책 소지 혐의로 어머니께서 끌려가셨던 2여 년 동안 나도 살기위해 안 먹어 본 것이 없었다. 방학에 외할머니댁 밭에서 엇그제 막 심어 놓은 감자알갱이까지 다 캐서 먹었고, 한 여름에는 먹을 만한 풀뿌리도 없어서 외할머니와 함께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오기도 했다. 그렇게 벗긴 소나무 껍질을 뜨거운 물에 삶고 또 절구에 찧어서 옥수수 가루 한 줌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먹고 나서 한동안 변비로 화장실을 가지 못해 배에 가스가 차올라 외할머니가 나무꼬챙이를 들고 나를 따라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어머니의 성공으로 풍족하게 지내고 있지만 어머니께서 안계셨다면 나도 친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2024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북한선교 이해와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기회인
북한선교학교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주차	날짜	강의 주제	강사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 이해	1	4/8	북한선교와 한국교회	하충엽 교수(숭실대)
	2	4/15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이해	최철 박사(심연북한연구소)
	3	4/22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경제와 장마당 이해	양운철 박사(세종연구원)
	4	4/29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의 사회와 문화 이해	정종기 교수(아신대)
	5	5/6	북한선교를 위한 북한 교회사 이해	유관지 목사(북한교회연구원)
	6	5/14(화요일)	DMZ 기도회	
북한 선교 현장 이해	7	5/20	북한 종교 박해의 실상	박한나 목사(북한수용소 경험 지하 교회 성도 출신)
	8	5/27	국내 정착 탈북민선교 사역의 이해	류달주 목사 (사랑방교회)
	9	6/3	북한선교에 있어서 국제 협력 문제	정인수 목사 (전 CCC 국제 부총재)
	10	6/10	비즈니스를 통한 북한선교	이다니엘 박사 (IBA 사무총장)
	11	6/17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대표(TWR 북방선교방송)
	12	6/24	제삼국 북한선교 현장 이야기	현장사역자
	13	7/1	제삼국 북한 여성사역 현장 이야기	현장사역자
	14	7/8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수료식	현장사역자
	15	7월 중	제삼국 비전트립	

시간 2024. 4. 8 ~ 7. 8 매주 월요일 저녁 7:15 ~ 9:15

장소 오픈도어선교회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01호, 상봉역 부근)
*현장강의를 기본으로 하며 지방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강의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회비 15만원 (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5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접수 2024. 2. 26 ~ 3. 29, 오픈도어 홈페이지(<https://www.opendoors.or.kr/>) - “이벤트 및 공지 사항”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 한아론 선교사 (010-5107-8448)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Heart To Heart

WEEKLY

Open Doors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통해 매주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채널 추가하세요 +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